

# 응원의 힘



김주식의  
세태 만화경

청춘남녀 여럿이 거리에서 경중경중 뛰며 손바닥으로 맞장구를 친다. 기분 좋은 하이파이브! 무슨 기쁜 소식이라도 전갈 받은 것처럼, 그 몸짓을 볼 때면 괜스레 설렌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코앞으로 성큼 다가왔을지. 그 몸짓이 어느 때와는 달리 보인다. 평창의 오펜기와 그들 몸짓의 신바람 속에서 흥(興)들이 나부긴다. 저 또랑또랑한 눈빛에서 어떤 결연한 포부를, 서로를 치켜세우는 엄지에서 희망찬 기약, 파이팅! 소리치는 외침에서 불꽃 튀는 다짐을 본다.

그것들을 하나로 뭉뚱그리면 응원!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최고의 동력을 꼽으라면 응원만한 게 또 있을까. 사람들이 응원한다고 할 때, 그 말끝엔 힘과 열정이 배어 있다. 목청껏 노래 부르고, 뜨겁게 박수치고, 경중경중 어깨춤을 추며 열띤 응원을 펼치는 것이다. 경기장을 뛰어본 선수들은 잘 안다. 응원이 때아리칠 때 실낱같은 희망을 걸게 하는지를, 허방 짚을 때 왜 버팀목이 되는지를, 흐느적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워 왜 괴력을 발휘하게 하는지를 잘 안다.

응원에 대한 내 최초의 풍경은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아래 펼쳐지는 만국기와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운동장을 질주하는 아이들을 향해 박수치는 모습이다. 나는 그 풍경 속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사생대회에서 이 풍경을 담은 그림으로 특선상을 받았다. 휘둥그레진 눈으로 시상대 앞에 섰다. 초등학교 전교생으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삼천육백명 이상의 박수가 모인 소리는 무척 컸다. 그 박수소리는 그림 속에 표현했던 뜨거운 응원과 같았다.

그날 이후 모든 박수는 응원의 소리로 인식됐다. 박수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었다. 사람들은 침울할 때 저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내며 응원하기도 한다. 마음의 박수다. 그렇게 하다보면 시들해지는 마음이 밝아지고 생기가 착 돈다. 마치 돌아가는 바퀴의 회전력에 의해 자전거 전조등에 불이 들어오듯이, 자가발전한 응원의 힘에 의해 마음의 창에도 불을 밝히는 것이다. 삶이란 더러는 혼자 일어서야 할 때가 있다. 그때야말로 응원 발전소가 필요하다.

응원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다. 자연도 할 줄 안다. 한 자락의 바람이 불어오면 나무와 나무와의 하이파이브가 곳곳에서 연출된다. 멀리서 바라보면 물결치듯 파도를 탄다. 마치 응원을 펼치는 것 같다. 새벽녘 산을 오를 때 그 소리를 들

으며 박수를 치곤 한다. 산은 참 정적이다. 꼭 메아리로 화답해준다. 이 겨울 앙상한 나무일지언정 두 팔을 벌려 박수와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응원의 메아리로 보답한다. 고마운 산이다. 소리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줄 아는 까닭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응원의 가치는 얼마일까? 그것의 부피와 무게를 과연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 상상을 초월하는 응원의 가치. 응원을 어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마는 경기장에 들어서면 누구나 큰 그림 하나쯤은 본다. 게임과 선수, 응원이라는 이 삼중세트가 서로 연동돼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응원은 변수. 그 변수에 따라서는 선수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그래서 게임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때면 느끼곤 한다. 응원의 힘이다.

응원은 우리네 일상의 삶 속에 담기면 환상적인 힘으로 확장된다. 거기에는 감동의 드라마가 연출된다. 그 드라마에는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희망이 그려진다. 햇볕은 따스하고, 바람은 훈훈하다. 그 시간이 비록 잠깐일지라도 에너지가 돌고 돌아 창출해내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서로 이해하려는 공감대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는 성숙함이, 감싸고 도타워하려는 배려가 꽃핀다. 함께 응원하다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행복이 아닐까. /인문인-세태평론가



**한화건설 '도서나눔 캠페인' 최다기부 시상** 한화건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17 꿈에그린 도서나눔 캠페인' 최다기부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대상을 수상한 박경수 씨는 1년간 524권, 우수상을 수상한 중학생 김수민 씨는 472권의 책을 전달해 최다기부자로 선정됐다. 한화건설 최광호 대표이사(오른쪽 첫 번째)가 우수상 수상자 김수민 씨(두 번째), 대상 수상자 박경수 씨(세 번째), 한화건설 이윤식 경영지원실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건설



**맥도날드, 소방공무원·가족에 평창올림픽 관람권 기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공식 파트너인 맥도날드는 지난 5일 소방청에 순직, 공상 소방공무원과 가족들을 위한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 관람권 75장을 기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관람권 기부는 위험한 사고 현장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이뤄졌다.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사장(왼쪽)과 조종목 소방청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맥도날드

# 금융권 채용비리, 두 가지 시각



기지수첩  
안상미  
(파이낸스&마켓부)

“은행들의 주주구성을 보세요. 주식회사인 민간기업입니다. 민간기업이 회사에 이익이 되는 직원을 뽑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국민들의 공분을 클 수 있는 이슈죠. 정서법에 걸린 겁니다.”

최근 만난 한 은행 관계자의 말이다. 과연 금융권 채용비리가 국민정서법에 만 위반된 사안일까.

알음알음 전해지던 채용비리가 드러났지만 여전히 금융권에서는 그간의 관

행을 두둔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실 감독당국의 채용비리 결과 발표에 은행들이 반박하며 내세웠던 근거도 대부분이 ‘관행’에 기댄 것들이 많았다.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떠나 특별히 관리하는 소위 VIP 리스트는 분명 있었고,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VIP는 모두 서류전형은 손쉽게 통과했다. 실력이 아닌 출신 학교로도 점수가 조정됐다. 심지어는 은행 임원이 자녀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상식 밖의 일도 일어났다.

대검찰청은 지난 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의 채용비리 자료를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6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지주 회계사무실과 채용담당 부서 등 6곳에서 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금융권이 말하는 ‘관행’을 어떻게 판단할 지는 검찰의 몫이 됐다. 만약 불법이라면 금융당국이 해임까지 권고할 수 있는 사안이 된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노조 모두 이미 최고경영자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이들 5개 은행 외에도 11개 은행 모두에서 크고 작은 채용비리와 불공정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5개 은행에 대한 수사는 금융권 채용비리에 대한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 /smahn1@metroseoul.co.kr



**중진공, 강릉원주대와 중소기업력한 해소 앞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강릉원주대학교와 '지역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두 기관은 지역 인재 양성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대학생 취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협력키로 했다. 중진공 이한철 이사장 직무대행과 강릉원주대학교 반선섭 총장(왼쪽 다섯번째부터) 등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중소기업계, 설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나눔 행사** 중소기업중앙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력 회복과 사랑나눔 실천을 위해 6일 경기 광명시장을 방문해 '설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및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 서석홍 중소기업재단이사장, 박성택 회장, 최승재 회장(왼쪽 여섯번째부터)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 인사

- ◆해양수산부 ◇국장급 전보 △정책기획관 김성범 △해양산업정책관 한기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홍종욱 △국방대학교 교육훈련 파견 김준석 △국립외교원 교육훈련 파견 김민중
- ◆특허청 ◇부이사관 승진 △대변인 정인식 △정보고객정책과장 전현진 △특허심판원 심판관 이미정
-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장 이현희 △미술관장 운동천
- ◆명지대 △사무지원처장 방선오

## 부음

- ▲ 천지애씨 별세, 오기현(한국무역협회 전 상무이사)씨 부인상, 오대은(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씨 모친상 =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성모병원 6호실, 발인 8일 오전 10시 ☎ 02-2258-5940
- ▲ 금동량씨 별세, 정성기(전 포스텍 총장)씨 모친상 = 5일 오후,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특 209호, 발인 8일 오전 8시, 010-6323-7840
- ▲ 오숙자씨 별세, 김준식(하나미크론 전무, 법무팀장, 미국 변호사)-은주(연남스 글로벌코리아센터 고문)-은영-은아(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본부실장)씨 모친상, 장충린(차바이오텍 전무, 전 두산상무)-이상직(충남대 교수)-윤호병(재미사업가)씨 부부상, 이명해 시모상 = 6일 오전 9시 30분, 강남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 발인 8일 오전 9시, 010-3741-2741
- ▲ 심정숙씨 별세, 박상은(효산의료재단 생병원 대표원장)씨 모친상 = 6일 오전 2시, 군포지생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8일 오전 7시, 031-389-3770
- ▲ 조병남씨 별세, 정지용(충주시 보건과 보건행정팀장)씨 모친상 = 6일 오전 7시 15분, 충주병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8일 오전 8시, 043-845-5100

## 유한김벌리

### 대학생 기자단 모집

유한김벌리는 '2018 대학생 기자단'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유한김벌리 대학생 기자단은 기업문화, 공익캠페인, 마케팅 활동 등을 20대의 관점으로 취재해 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위해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기자단 모집은 이달 25일까지로 유한김벌리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기자단 공식 운영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개인 SNS를 활발히 운영하고, 글·사진·동영상 등을 활용한 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1차 합격자 발표 이후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가 선정되며 3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약 5개월 간 공식활동에 들어간다. /김승호 기자 bada@

## 인천국제공항, 평창올림픽 기념 콘서트

인천국제공항이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매일 오후 4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 밀레니엄홀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 콘서트'를 개최한다.

국내 정상급 합창단과 가수, 오케스트라, 뮤지컬 배우, 성악가, 발레단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공연을 펼친다.

공연 첫날인 7일에는 인천시립합창단이 축제의 시작을 알리며 정통 합창 연주와 감미로운 화음의 향연을 펼친다. 8일에는 한국 발라드계를 이끌며 뛰어난 가창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김연우의 콘서트가 진행된다.

9일에는 국내 뮤지컬계를 뒤흔들고 있는 정상급 뮤지컬 배우 윤형렬, 배다해, 한지상, 신영숙의 연기와 트리니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어우러진 '뮤지컬 갈라쇼'가 진행된다.

10일에는 인기 성악가 바리톤 김동규와 DK콘서트앙상블이 펼치는 '김동규 재즈-월드뮤직 콘서트'가 감동을 전한다.

공연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와이즈 발레단의 발레리나들이 펼치는 환상적인 발레공연을 대미를 장식한다. /양성문 기자 ysw@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허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주)중앙일보 김교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100206